

기획시리즈 /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11

녹색으로 옷 갈아입는 우정사업본부

2020년까지 CO₂ 20%이상 감축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후원업체: 농협물류, 대한통운, SEANG, 한진, 현대택배(주)

후원기관: 국토해양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가 녹색 옷 갈아입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7월 1일에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과 남궁민 본부장 등 직원 400여명이 모여 ‘녹색우정 선포식’을 가지고 2020년까지 CO₂ 20% 감축(2008년 대비)을 다짐했다.

우정국의 녹색바람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만국우편연합(UPU)의 친환경 활동 촉구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UPU는 2008 제네바 총회에서 ▲전력·연료 사용량 절감 ▲시설물 건축 시 친환경 설계 ▲환경 친화적 제품 사용 ▲고연비 저공해 차량 도입 ▲탄소배출 상쇄활동(나무심기) 추진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녹색우정 기반 조성 ▲녹색운송 실현 ▲녹색우체국 건축 및 관리 ▲녹색우정 서비스 제공 등의 4가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아래 녹색 기반 조성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2020년까지 2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우정국은 140,505tCO₂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2020년에는 27,587tCO₂가 줄어든 112,918tCO₂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용으로는 100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운송부문에서도 8%를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녹색문화 전파에도 힘을 쏟는다.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 Green School을 설치해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녹색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녹색 학술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명사 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된다. Green School은 올해 하반기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종괄국 별로 ‘1우체국 1녹색운동’도 추진해 연말에는 우수과제 시상식도 갖는다.

친환경 차량으로 녹색운송 실현

녹색우정을 위한 친환경 차량도 대대적으로 투입된다. 현재 우편 업무용 차량은 총 3,741대(‘09. 4월 기준)로 이중 1,089대(29.1%)가 친환경 차량으로 운용되고 있다. 2012년까지는 우편차량의 50%, 2020년에는 전 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카 등의 친환경 차량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녹색운전문화를 확산해 운전 습관 개선으로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두 마리 토끼도 잡고자 한다.

IT도 녹색우정을 돕는다. 오는 10월까지 IT를 활용해 운송망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운송망을 최적화 시킬 예정이다. 12월에는 TMS(운송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11년 이후 우체국은 모두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에 대한 설비 투자도 이뤄진다. 대형 우체국은 2010년, 중소형 우체국은 2011년부터 신·개축 시 친환경 건축물 우수 등급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이후에는 전 우체국 에너지 성능지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명등도 모두 LED로 바뀐다. 올해 말에는 모든 우체국의 백열전등이 100% LED로 교체된다. 2011년 이후에 신·개축 되는 우체국사도 30% 이상

LED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양한 녹색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녹색 서비스가 준비된다. ePOST내 우체국장터를 활용해 친환경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녹색구매코너’를 별도로 개설해 판매업체들의 입점을 유도한다. 포장도 변한다. EMS의 포장상자는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변경된다. 지난 6월에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전자우편도 창봉투(비닐)대신 무창봉투로 대체됐다. 에너지의 날(8.20)에는 ‘그린에너지’ 특별우표가 발행되며 ‘2010 세계우표디자인 공모대회’(09.7~8월 개최)의 일반부 주제는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녹색보험도 선된다. 신재생에너지개발 분야와 에너지고효율화 분야에 각각 매년 100억 원씩 투자되는 녹색시장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년에는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 심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아울러 물류기업들의 녹색옷 입기를 얼마나 촉진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수진 기자, sjbae@klnews.co.kr〉